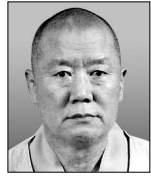


일주문



개운사서 법문
영축총림 통도사 율주 혜남 스님은 8월 28일 오전 10시 서울 개운사에서 열리는 법회에 초청돼 법문을 한다.(02)926-4069



대승종 종도수련법회
대승종 총무원장 청화 스님은 8월 29~30일 충북 괴산 다보수련원에서 2005년 종도수련대법회를 개최한다.(051)638-4088



낙산사 복원 기금 1억원 전달
대한불교진흥원 홍승희 이사장은 8월 16일 화재로 소실된 사찰 복원에 써달라며 1억원을 낙산사 주지 정념 스님에게 전달했다.



명원문화재단 하계연수회
명원문화재단 김의정 이사장은 8월 16~17일 경기도 이천 명원농원에서 200여 전국 지방장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연수회를 개최했다.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주제 토론회
사단법인 보리 김재일 이사장은 8월 19일 서울 우리회관에서 '자연환경 다큐멘터리 이대로 좋은가' 주제 토론회를 개최했다.

“대원 거사 원력 한국불교 발전 밑거름”

불교 진흥원 설립 30주년
장경호 거사 입적 30주기
기념·추모법회 성황



8월 16일 서울 다보빌딩에서 열린 대한불교진흥원 설립 30주년 및 대원 장경호 거사 입적 30주기 기념법회에는 사부대중 500여명이 동참했다.

대원 장경호 거사(1899-1975)의 입적 30주기 추모법회가 8월 16일 서울 마포 다보빌딩 다보원법당에서 열렸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이사장 홍승희)의 30주년 기념법회와 함께 진행된 이날 법회는 장경호 거사의 업적을 기린 추모 영상물 상영, 새로 발간된 평전 분권 등으로 진행했다.

송석구 진흥원 이사는 추모 및 기념사에서 “대중불교운동을 이끌었던 대원 장경호 거사의 원력과 신심으로 설립된 대한불교진흥원은 종단과 사찰의 대소불사 후원을 비롯해 한국불교의 밑거름이 돼 왔다”며 “가시적 성과에 급급하지 않고 수행을 중심으로 삼아 상을 내지 않으면서 원만한 불교발전을 위한 불사를 이끌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스님은 “대한불교진흥원은 앞으로 대원 장경호 거사의 신심과 원력을 실현

에 옮기는 역할 뿐만 아니라 재가 불교를 이끌어가는 중심이 돼 달라”고 당부했다.

이날 법회에는 조계종 원로의원 정무 스님, 봉선사 조실 월운 스님을 비롯해 조계종 총무원장 법장, 태고종 총무원장 운산 스님, 진각종 통리원장 회정 정사, 총지종 통리원장 우승 정사, 불교방송 이사장 도후 스님, 김광삼 현대불교신문사 사장, 조재룡 불교TV 사장,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장경호 거사의 유가족 등 500여 명이 참석했

다.

(재)대한불교진흥원은 1975년 설립된 이후 조계종, 동국대경원, 한국불교연구원, 한국불교학회, 한국대학생불교연합회 등의 각종 사업을 지원한 것을 비롯해 70여종 불서 보급, 대중불교 중심도량 대원정사 건립, 격월간 <불교와문화> 간행, 군법당 건립 지원, 다보수련원 건립, 대원상 제정, 불교방송국 건립 주도 등을 전개해 재가불교를 이끄는 단체로 자리잡았다.

박병영 기자 bypark@buddhapia.com



무량사에서 한국전통 차 예절을 체험하는 하와이 주둔 미국 군인들.

하와이 주둔 미군, 무량사에서 ‘템플라이프’

“한국절 차 아름다워요”
하와이에 주둔하고 있는 미국군인중 한국어를 배우는 30여명이 8월 15일 무량사(주지 도현)에서 3시간동안 템플라이프를 가졌다. 이들은 불교와 하와이 무량사에 대해 김정국 사무장으로부터 강의를 들은 뒤 경내를 둘러봤다. 특히 참가자들은 무량사의 독특한 한국식 건축미에 관심을 보였다. 김 사무장이 “무량사는 30년전 한국에서 자체를 모두 들여와 건립했다”고 말하자

그 정성에 감탄해 했다. 참가자들은 무량사내 명원다문화원에 들러 다도와 한국 예절도 체험했다. 한국 전통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명원다문화원 하와이지부 엘리 선생으로부터 한국 전통 절을 배워보는 예절교육과 한국 전통차 를 직접 우려 마셔보는 다도교육을 받았다. 참가자들은 사찰음식으로 점심공양을 하며 한국사찰의 매력에 흠뻑 빠졌다.

하와이=김원우 기자

독립운동가 김홍규선생 건국포장 서훈



독립운동가 김홍규 선생의 건국포장 시상식이 8월 15일 대전광역시청 대강당에서 열렸다. 탄허 스님의 부친 김홍규 선생은 일제하에서 상해 임시정부의 독립자금 지원을 위해 일경에 체포돼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고 복역했다. 손자 김년우(사진 왼쪽)씨가 대신해서 훈장을 받았다.

동대문경찰서 관내 사고사망자 천도제



동대문경찰서(경총실장 범안) 관내 사고·사망 영가 166여 극락왕생을 발원하는 합동천도제가 8월 17일 서울 마로니에 공원에서 열렸다. 이날 천도법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련’, 영가에 법문과 제사를 하는 ‘대령’, 부처님께 나아가기 위해 탐진치를 벗기 위한 목욕을 하는 ‘관욕’ 순으로 진행됐다.

경주 오덕선원 통일발원 산신대제



한민족 통일발원 산신대제가 8월 14일 경주 건천읍 오덕선원(주지 정해) 경내에서 봉행됐다. 300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이날 행사는 사리진 견본회, 산사음악회, 연꽃축제 등을 겸해 진행됐다. 정해 스님은 이날 법회에서 “산신제를 거행한 것은 역사를 바로 정립하고 민족뿌리를 찾기 위해서다”라고 말했다.

“한국 방문 1년 기다렸어요”

‘옹박’의 전사 토니 자 봉은사 방문

영화 ‘옹박-두번째 미션’ 홍보차 한국을 방문한 무에타이 전사 토니 자(29·사진). 불교신자인 그는 8월 18일 서울 삼성동 봉은사를 찾아 원혜 스님을 만났다.



노병철 기자

지난해에도 봉은사를 방문한 적이 있는 토니 자는 “스님의 따뜻한 환대를 받고 태국에 돌아가서도 스님과 한국의 사찰 풍경을 잊을 수 없었다”며 방문 이유를 밝혔다.

아버지가 태국 전통무예 무에타이 선수인 토니 자는 10살 때 직접 무에타이를 배웠고 액션 배우가 되겠다고 다짐한 15살부터는 본격적인 수련에 들어갔다.

앞으로 그는 무에타이와 관련된 영화를 더 많이 제작해 세계 각국에 태국 문화와 정서를 알리는 데 주력할 생각이다. 아울러 토니 자는 “불교 교리 공부에도 전념할 것이며 기회가 된다면 한국에 와서 단기간이라도 경험해 보고 싶다”는 뜻을 전했다.

이전 지구총공생회(대표 율주)가 8월 1일자로 사무실을 서울 광진구 능동 283-15번지로 이전했다.(02)455-9596

“내가 떠나다 전법의 등불 계속되길”

최고령 이홍세 포교사 동산불교대에 포교당 증여

“나이가 많은데 병까지 얻어 이제 마포포교당을 떠날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제가 없더라도 동산불교대가 계속 포교당을 재가불자들의 공간으로 꾸려 주리라 믿습니다.”

최고령 현역 포교사로 활동하고 있는 서울 마포포교당 이홍세(93·사진) 법사가 동산불교대(학장 무진장)에 포교당을 무상 증여해 화제가 되고 있다. 마포포교당은 30여 년 이 법사의 꿈과 포부가 가득 담긴 공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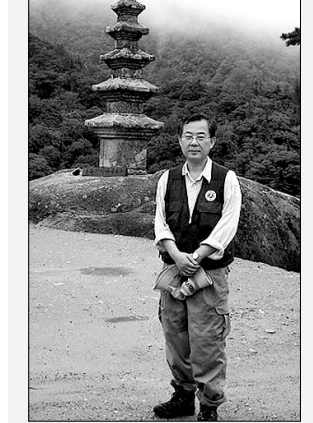
8월 18일 동산불교대에서 진행된 증여식에서 이 법사는 “4월 탈장 수술을 받았는데 지금 뇌졸중 증세까지 있어 법당을 떠날 때가 된 것을 느꼈다”며 “동산불교대가 마포포교당을 더욱 잘 이끌어갈 것이라 믿고 가볍게 모든 것을 내놓고 떠나다”고 담담하게 말했다.

이 법사는 이날 마포포교당의 모든 살림살이를 넘겨주었다. 마포포교당은 100평 규모의 도심포교당으로, 재산 가치는 1억 6000만 원에 이른다.



유학자 집안에서 태어나 성대 이사장까지 지낸 이홍세 법사는 70년 처음 불교에 귀의, 그해부터 포교현장에서 활동했다. 이어 82년 도심포교를 목표로 마포포교당 문을 열고 23년 동안 같은 자리를 지켜왔다. “개인 초창기부터 함께 활동했던 청년들이 어느덧 중년이 됐습니다. 이제 많은 불자들이 마포포교당과 세월을 함께할 수 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김강진 기자 kangkang@buddhapia.com



정동채 문광부장관 설악산 봉정암 참배

정동채(사진) 문화관광부장관이 8월 11일 설악산 봉정암 적멸보궁을 참배했다.

하계 휴가기간을 이용해 백담사와 봉정암을 방문한 정 장관은 봉정암 주지 정념 스님과 차담을 나누며 불교계 현인을 정취하는 시간을 가졌다. 정 장관은 이어 2005 만해축전이 열리는 만해마을을 찾았다.

조용수 기자

(사)한국불교금강선원 학생모집 안내 직장에서 가정에서 불교 교리 학습

한국불교통신대학·대학원

기초과, 중등과, 고등과, 대학과, 연구과정(대학원)

발심을 하고도 기회가 주어지지 않거나 시간상 제약으로 부처님 가르침을 체계적으로 공부할 기회를 갖지 못하는 불자를 위해 한국불교통신대학에서는 수시로 다음과 같이 학인을 모집합니다.

통신교육은 각자의 근기와 환경에 맞추어 학습 진도를 조절하면서 공부할 수 있도록 교과 과정이 수립되어 있어 시간상 제약에서 벗어날 수 있습니다. 통신교육비는 별도로 부과하지 않으며, 교재비만 각자가 부담합니다.

Table with 2 columns: 불교통신대학, 불교통신대학원. Rows include 모집기간, 수업연한, 수업방법, 전일방법, 제출서류.

- 통신대학 졸업자에게는 전법사 자격증을 수여
통신대학원 졸업자에게는 법사, 포교사자격증 수여
특전: 사찰 개원 및 운영에 관한 행정 지원

졸가 수업을 희망하는 자는 나란다 삼장불학원(집계교육) 참조

나란다 삼장불학원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나란다 삼장불학원은 강령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스님과 출가를 원하는 불자 및 초발심자를 위하여 의식을 포함한 기초과정이 마련되어 있습니다. 또한 불교 지도자 양성을 위하여 불교대학, 불교 교양 대학, 대학원 연구과정을 거친 법사 및 포교사를 위한 특별과정이 개설되어 있습니다.

* 특히 출가수행을 원하거나 사찰 또는 포교당을 개설하고자 하는 불자를 환영합니다.

Table with 4 columns: 학과, 수업방법, 교육기간, 자격. Rows include 사미과, 사집과, 사교과, 대교과.

- 원서교부: 2005년 8월 1일부터
입학일: 9월 5일
전형방법: 서류전형 및 면접
특 전: 1. 출가수행, 사미, 포교원운영 행정지원
2. 출가수행자를 위한 기숙사 원비
교 수 진: 활인(한정성)스님, 호암스님, 서무선교수, 이지행교수, 김익순교수

통신교육을 희망하는 자는 통신대학, 대학원 참조

불교예술대학

- 모집인원: 약간명
수업일시: 매주 금요일 오후 3시 ~ 7시
(제 9기수업: 매주 화요일 오후 3시 ~ 7시)
강의내용: 천수바라, 사다라니바라, 요점바라, 도량계작법, 다계작법, 사방요신, 법고무, 사물(북, 태징, 목탁 등) 다루는법

지도교수: 대혜스님

* 2005년 9월 둘째주 화요일 (9월 6일) 제 9기 첫수업이 시작됩니다.